

KIA, 서건창 '경험'으로 성공적 내야 세대교체 노린다

연봉 5천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에 계약...후배들에 '성장의 시간' 선물 기대

KIA 타이거즈가 '경험'으로 내야 세대교체 속세를 끈다. KIA가 15일 내야수 서건창과 연봉 5000만원, 옵션 7000만원 등 총액 1억 2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광주일보 출신의 서건창은 고향팀에서 또 다른 야구 무대를 펼치게 됐고, KIA는 경험을 통해 내야 세대교체 속도·방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 서건창은 '육성 선수 신화' 주인공 중 한 명이다. 광주일보를 졸업한 그는 2008년 육성 선수로 LG 트윈스에 입단했다. 이해 정식 선수로 전환, 1군 경기에도 나섰지만 1경기 1타석에 유일한 기록이다. 어깨 부상 여파로 LG에서 방출된 서건창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키움(당시 넥센) 히어로즈에서 야구 꽃을 피웠다. 서건창은 입단 테스트를 받고 키움에서 신고선수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2012년 127경기에 나와 존재감을 보여준 그는 2014년에는 '200안타'라는 대기록도 만들었다.

서건창은 2014년 10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시즌 197번째 안타를 장식하면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196안타를 넘겼다. 이후 서건창은 201안타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KBO리그 첫 '200안타' 주인공이 됐다. 2014시즌 0.370의 타율로 '타격왕'에 등극한 그는 이해 MVP까지 차지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또 2012, 2014, 2016년 골든글러브 시상식 단상에도 오르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내야수로 활약했다. 서건창은 KBO리그 13시즌 동안 1256경기에 나와 1365안타, 타율 0.297, 491타점, 813득점, 229도루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1시즌 도중 LG로 트레이드된 서건창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다. 서건창은 LG로 복귀한 첫 시즌 144경기를 소화했지만 0.235의 타율에 머물면서 'FA 재수'에 나섰다. 2022시즌과 2023시즌에도 부상과 내부 경쟁

에 밀려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2시즌 77경기에 나왔던 서건창은 지난 시즌에는 44경기 출장에 그쳤다. 결국 LG에 요청해 방출을 선택한 그는 새 팀을 찾아왔다.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키움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광주에서 몸을 만들어왔던 서건창은 고향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KIA는 "팀의 젊고 유망한 내야수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영입을 결정했다"며 그의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 KIA는 앞서 서건창과 1989년생 동갑내기인 김선빈과의 FA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내야 전력을 지켰다. 김선빈과 박찬호라는 막강 '키스톤 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야의 격차가 크다. 골든글러브 수상자 출신의 두 베테랑이 내야를 지켜주게 되면서 KIA는 신예들이 안정적으로 경험을 더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을 얻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야수 서건창이 KIA 타이거즈와 계약을 마무리한 뒤 챔피언스필드 사무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장윤우(왼쪽에서 세 번째)가 11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대한체육회 김홍식 부회장,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 현종무 지도자(맨 오른쪽)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종무 지도자 제공)

성덕초 장윤우 빙속 1500m 우승...광주시 '첫 금'

제105회 전국 동계체전

스피드 스케이팅 장윤우(성덕초6)가 제105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광주시 첫 금메달을 따냈다. 장윤우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지난 13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진행된 스피드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분13초14로 결승선을 통과한 장윤우는 의정부 스케이팅클럽 이태성(2분13초38)과 남양주셋별초 윤지환(2분17초37)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장윤우는 앞서 11일 진행된 스피드스케이팅 메스스타트 13세 이하부 경기에서는 최종 5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며 광주시에 이번 동계체전 첫 메달을 안겼다. 장윤우는 지난 12일 열린 스피드 200m 경기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제105회 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는 국제대회 일정에 따라 동계체전 일정보다 5주 앞서 사전 경기로 치러졌다. 장윤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부터 롤러스케이팅

를 뒀던 장윤우는 발목을 다친 이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부상에서 회복한 뒤 어머니의 제안으로 빙상장을 찾은 게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 동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윤우는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릴 계획이다. 한편, 스피드 메스스타트 경기가 진행된 11일 태릉을 찾은 광주시체육회 전갑수 회장은 "동계종목 불모지인 광주에서 불평없이 훈련에 몰입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FC, 시즌 첫 승 제물은 '서울'

K리그1 정규라운드 일정 발표
3월 2일 안방서 개막전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기

광주FC가 FC서울을 상대로 2024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2024시즌 K리그1 정규라운드 일정을 발표했다. 2024시즌 '디펜딩 챔피언' 울산HD부터 승격팀 김천 상무까지 12개 구단은 1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기를 치르게 된다. 3월 1일 오후 2시 울산HD와 포항스틸러스가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공식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2연패를 이룬 울산과 FA컵 우승팀 포항이 화끈한 '동해안 Derby'로 2024시즌 K리그 1 문을 연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전북은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김태환, 이영재, 티아고 등 검증된 자원을 대거 영입하며 패권 탈환을 위해 재정비를 했다. 이에 맞서는 대전도 김승태, 홍정운 등 베테랑 선수들을 통해 공-수를 강화했다. 지난 시즌 3위라는 구단 역대 최고 순위를 장식한 광주는 3월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과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사령탑의 자라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시

즌 돌풍을 일으켰던 광주 이정호 감독이 포항을 떠나 새로 서울 지휘봉을 든 김기동 감독과 맞선다. 이어 오후 4시 30분 두 경기가 동시에 시작된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FC가 맞대결을 벌인다.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에 성공한 인천은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도전에 나서고, 시즌 막판까지 강등전쟁을 벌인 수원FC는 새 사령탑 김은중 체제로 반등을 노린다. 같은 시각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는 강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진행된다. 제주 김학범 감독에게 눈길이 쏠린다. 김학범 감독이 6년 만에 K리그 사령탑으로 복귀해, 친정팀 강원을 상대한다. 3월 3일 오후 2시에는 대구FC와 김천상무가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만난다. 지난 시즌 파이널A에 올랐던 대구와 최종전날 극적으로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며 승격에 성공한 김천의 맞대결이다. 33라운드 정규일정이 끝난 뒤에는 파이널라운드가 전개된다. 파이널라운드는 34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각 팀별로 5경기씩 진행되며, 정규라운드가 마무리된 뒤 일정이 확정된다. 한편 올 시즌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도 계속된다. 각 팀당 1회씩 금요일 야간 경기를 소화하게 되며, 7월 5일 올 시즌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병훈이 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 오픈 1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병훈, PGA 투어 소니 오픈 연장 접전 끝 준우승 '눈물'

안병훈(32)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정상 문턱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다. 안병훈은 1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 투어 소니 오픈 마지막 날 다른 2명의 선수와 연장전까지 벌인 접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안병훈은 2016년부터 PGA 투어 정상의 문을 두드렸지만, 준우승 횟수를 5회로 늘렸다. 하지만 2024시즌 개막전인 더 센트럴 단독 4위에 이어 다시 톱5 안에 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알코올 중독과 교통사고를 겪은 그레이슨 머리(미국)는 연장전에서 12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

공해 PGA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차지하며 상금 149만4000달러(약 19억3000만원)를 받았다. 1~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63타를 적어낸 안병훈은 키건 브래들리(미국), 머리와 동타를 이뤄 18번홀(파5)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안병훈은 티샷을 낚지 않은 러프 지역으로 보낸 뒤 두 번째 샷도 그린 오른쪽 러프 오르막 경사에 떨어뜨렸지만 어프로치 샷을 홀 1.3m에 붙여 승부가 끝나는 듯했다. 머리는 티샷을 페어웨이 왼쪽 러프로 보내는 바람에 두 번째 샷도 그린을 노리지 못했다. 세 번째 샷도 홀과는 거리가 있었다. /연합뉴스

하지만 머리의 퍼트는 12m를 굴러 홀로 빨려 들어가 갤러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안병훈의 짧은 버디 퍼트는 홀을 외면해 우승컵은 머리에 넘어갔다. 머리는 신인 시절이던 2017년 버바솔 챔피언십 이후 7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머리는 "나 자신과 골프, 인생을 포기하려던 시절이 있었으며 '쉽지 않았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안병훈은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쳐 우승 경쟁을 벌였다. 정규 경기 18번홀에서 4m 거리의 이글 퍼트를 넣지 못해 연장전까지 간 것이 아쉬웠다. /연합뉴스

광주FC, 독일서 활약 미드필더 최경록 영입

원발 활용 킥·플레이 강점...다양한 포지션 소화 '멀티플레이어'

광주FC가 독일 무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최경록(사진)으로 전력을 강화했다. 광주는 15일 "팀 공격에 힘을 실어줄 멀티플레이어 최경록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176cm·68kg의 신체조건을 갖춘 최경록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원발을 활용한 킥과 플레이가 강점이다. 뛰어난 센스로 데드볼 상황이나 찬스에서 생산력을 보여주는 그는 부지런한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최경록은 공격적이면서도 수비적인 책임감으로 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하며, 다양한 미드필더 포지션이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풍생고 출신인 최경록은 2013년 아주대에 진학했지만, 중퇴 후 입단 테스트를 받고 독일 FC 장크트파울리(분데스리가2) 유소년팀에 입단했다. 이곳에서 19경기 9골 6도움을 기록한 그는 2014년 프로팀과 계약을 맺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최경록은 데뷔전에서 2골 1도움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고, 바이어04레버쿠젠(분데스리가)의 오퍼를 받기도 했다. 2018년에는 카를루스어SC(분데스리가2)로

이적해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정호 감독과 대학에서 연을 맺었던 최경록은 K리그에서 다시 스승과 재회하게 됐다. 최경록은 "독일 진출 후에도 감독님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었는데 '연제가 함께 하자'는 말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광주FC는 추구하는 바가 분명한 팀이고 그것을 증명할 줄 아는 팀이라서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다. 전지훈련 기간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경기,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